



‘부르고뉴의 대명사 알베르 비쇼’

알베르 비쇼 부르고뉴 샤르도네 스크레 드 파미

Bourgogne Secret De Famille Chardonnay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2.46%	용량	750ml
등급	AOC	시음 적정 온도	10-13℃
테이스팅 노트	절제된 오크의 사용으로 신선한 꽃과 과일의 향기와 함께 은은한 오크의 터치를 느낄 수 있다. 균형잡힌 구조감을 느낄 수 있으며 크리미한 미감과 함께 긴 피니쉬를 느낄 수 있다.		



제품설명



코드 도르(Cote d'Or) 지역에서도 화이트 산지로 유명한 뫼르소, 뿔리니 몽라세, 땡 어빈의 외곽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엄선하여 만든 와인이다.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숙성을 진행하여 샤르도네의 신선하면서도 풍부한 과일과 꽃의 풍미가 돋보이며, 약간의 프랑스산 오크의 터치를 가미하여 은은한 복합미를 더한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2022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87점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떼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